

충북대학교 충북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 추진 계획안

I 추진배경

- 지역 간 경제·사회적 격차의 심화로 인해 비수도권 청년들이 진학 및 구직 등을 위해 수도권 및 세종으로의 이동이 증가*하는 추세
* 20대 순유출 전북(-4.5%), 전남(-4.2%), 경북경남(-3.3%), 세종(9.3%), 서울(3.3%) ('20, 통계청)
- 특히, 양질의 일자리 및 연구개발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
※ 대학별 미충원 수(명): ('16)수도권 819 비수도권 5,616 → ('20)수도권 2,170 비수도권 11,985
- 이에, 우리대학에서는 지역 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및 교육혁신을 통한 인재육성을 위해 「충북대학교 충북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」 마련이 시급

II 현황 및 문제점

- **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**
 - 대학입학정원의 지속적 감소와 진학을 위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출로 지방대학의 입학정원 충원을 위한 한계 봉착
※ 대학 입학 정원: ('15) 52만명 → ('21)47만 4천명 → ('24)37만 3천명 예상
※ 21년도 일반대학 소재지별 충원율: 대도시(97.6%), 중 소도시(91%), 군(85.7%)
 - 1차 기본계획*으로 재정확충과 대학 자율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학의 대학혁신을 위한 대학 간 동반성장 촉진에 어려움
※ ∞대학교 기획재정부장 “대학정원, 진단 평가 등 기존 제도와 혁신 노력 간의 갈등, 개별 대학 위주의 재정지원사업의 한계 노출”
* 1차 기본계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(2016~2020)

□ 취·창업 지원 및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부족

-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의 이탈*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지역-대학 간의 청년들을 위한 취·창업 지원 부족
 - ※ (‘21)수도권 취업 유출률: 충청권(56.9%), 강원·제주권(55.3%), 대경권(26.8%), 호남권(25.1%), 동남권(18.8%)
- 문화·도시 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청년이 선호하는 인프라 부족과 지역인재 친화적 취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정책 부족
 - ※ ▼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“지역혁신을 위한 일자리 및 R&D 역량이 미흡하고 관련 고급인재가 부족”

□ 혁신주체 상호 간 소통 및 협업을 위한 체계가 미흡

- 지자체와 지방대,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을 위한 조직·체계의 미비와 부처별·기관별 분절적으로 사업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제한
 - ※ ◇◇대학교 창업지원단장 “지역혁신주체 간 다양한 층위에서 협업을 위해 체제 마련 필요”
- 1차 기본계획에 따라 협의회가 운영되었으나, 지역별 보유자원 및 대학 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컨트롤 타워 및 기반 부족
 - ※ 충북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: “연 1회, ‘21년 2회만 계획되어 있어 주요 안건을 수시로 마련 필요”

Ⅲ 추진방안

□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

- (교육 유연화) 지역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분야의 재정확충* 및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 동반 성장을 대학 운영 관련 규제** 유연화
 - * 바이오분야 장학금 지원, 지방비 증액으로 지원 확충 등(2차 기본계획 반영)
 - ** 대학 정원 조정,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 등
- (지역 특성화 확대) 충북지역 핵심분야*를 중점으로 지자체·지역 대학 등과 협력하여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공유대학** 지원 강화
 - ※ 충북대 RIS(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): (‘21)1차 년도 평가 최고등급
 - * 충북지역 핵심분야: △제약바이오 △정밀의료·의료기기 △화장품·천연물
 - ** 충북바이오헬스혁신센터 구축(일반대 10곳, 전문대 5곳 참여)

□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혁신

- (취·창업 환경조성) 충북지역 내 '캠퍼스 혁신파크'* 조성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, '지역혁신플랫폼**사업 강화로 교육·창업공간 등의 융합 도모
 - * 충북지역: 오창과학산업단지, 오송바이오산업단지
 - ** 지역혁신플랫폼: 대학-지자체-기업-연구소 연계한 사업
- (정주여건 조성) '지역 연합대학원 모델* 창출 및 지역 연구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우대정책을 확대하여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 조성
 - ※ 대학-지자체-연구소-공공기관 협업: 공공기관 의무 채용비율 30%이상 단계적 확대 및 채용제도 개선, 연구개발 및 정착금 지원 등
 - * (사례참고) 국제화 선도모델: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 학·석사 학위과정

□ 대학-지자체-산업 등 주체 간 협업체계 구축 강화

- (거버넌스) (가칭)'충북지역협업위원회'*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층위의 협력을 위해 지역인재 정책의 총괄 조정체계 강화
 - * 위원회: (위원)대학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장, (위원장)지자체 장
 - ※ 중앙의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: 재정지원, 사업신설 등
- (공유·협력) 각종 평가* 대비 및 주체 간 보유 자원 및 대학 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"정보통합관리망" 구축하여 협력을 촉진
 - ※ 센터·사업단: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(CHEC),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단(RIS) 등
 - *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

IV 추진일정

- 충북대학교 충북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 기본계획(안) 수립: ~ 22. 8월
-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: ~ 22. 10월
 - ※ (대학-지자체-공공기관) 육성지원협의회 및 지역협업위원회 협의
- 충북대학교 충북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: ~ 22. 11월